죽비와 목탁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통도사 자비원의 대만 '견학'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종찰 통도사 사회복지법인 자비원(대표이사 정우) 산하시설 직원들이 3월 5~9일 대만 연수를 다녀왔다. 그들이 바쁜 중에도 대만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지불사로 대만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종교로 자리 잡은 대만불교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상임이사 현기 스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사 20여 명은 화련(花蓮)의 자제공덕회, 까오슝(高雄縣)시의 불광산사, 중부 일월호에 있는 중대선사, 타이페이시의 시립 경로원을 방문해 대만 불교복지의 현장을 생생하게 살펴봤다.

자비원 산하시설 직원들은 자제공덕회의 엄격한 자제위원 선발과정을 보며 국내 복지 인재불사부분에 도입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자제공덕회는 포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청렴성을 중요 자질로 여긴다. 1년에 1000여 명 배출되는 자제위원은 사회봉사 활동과 자제정신의 역사, 연원, 현 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6개월 이수하고 매월 1회 12시간씩 2년간 교육받아야 위원이 될 수 있다. 자제공덕회가 미국과 유럽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골수은행을 가진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인구 2300여만에 불과한 대만에서 골수기증자가 40만명에 이른 것은 인구 5000만명인 한국에서 골수기증자가 9만여 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주목할 만하다.

자비원 관계자들은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신도와 자원봉사자를 거느리면서 의료, 교육, 문화, 환경 보전 등의 활동을 펼치는 자제공덕회를 뒤로하고 부처님이 설법한 '평등정신'을 구현중인 불광산사로 향했다. 사찰 내에서는 1400여 명의 비구, 비구니스님들과 많은 재가자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모두 평등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진정한 보살심으로 자원봉사에 임할 것을 깊이 새겼다.

100여 년 전통의 대만불교는 중국과 분리 후 50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복지불사를 이뤘다. 이는 성운 · 증엄 스님 등 큰스님들의 가르침과 함께 대만 국민들의 불청지우(不請之友: 고통받는 중생을 보면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돕는다) 정신이 있어 가능한 결과였다.

10여 년 전 20개 뿐이던 한국의 불교사회복지 시설은 현재 700여 개로 양적 팽창을 거듭했다. 이제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사회복지사업을 펼칠 때다. 단기간에 복지불사를 이룬 대만불교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한국적인 불교복지를 개척하는 시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

부결… 부결… 부결!

조계종 임시종회 22건 상정, 11건 논의, 단 3건 통과

제180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3월 16~20일 5일 회기로 열렸다. 이번 종회에는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 승랍기산 관련 승려법 개정안,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등이 이슈였으나 모두 부결됐다. 논의된 법안은 전체 22건 중 11건으로 종헌 개정안 3건을 비롯해 종법 제 · 개정안 8건, 통과된 법안은 3건뿐이었다.

특히 결산을 위해 소집된 결산종회는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원로스님들의 청원까지 있었던 2009년도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종회에 상정된 종헌개정안은 3건이다. 이중 △범법한 주지를 종단 징계 절차에 앞서 총무원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안(정범 스님 대표발의)은 부결됐고, △호계원장 등을 중앙종회가 불신임하도록 한 안(정범 스님 대표발의)과 △군승의 독신비구 예외 조항을 삭제한 안(주경 스님 대표발의)은 통과됐다.

상정된 19건 중 8건만 논의됐던 종법 제 · 개정안은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개정안만이 통과됐다. △승랍기산에 관한 승려법 개정안과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교구종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폐지 및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은 상정됐으나 논의 끝에 폐기 또는 이월됐다.

특히 교계의 관심을 끌었던 승랍기산 변경건과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건은 격론이 오갔다.

덕문 · 정범 스님 등 젊은 의원스님들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휴 학담 스님 등 중진스님들의 반대가 더 거셌다.

결국 법안은 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선배스님들의 간곡한 뜻에 따라 후배스님들이 양보해달라. 수정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자"고 말해 종법 제 · 개정건 마지막에 논하기로 미뤄졌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1994년 종단개혁 후 제정돼 단 한 차례 수정도 없었던 총무원장 선거법 역시 폐기됐다.

개회전부터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선출 절차와 선거공영제 등을 규정해 종단의 선거문화를 바꿀 것으로 기대됐던 개정안 일독회부터 각 조항마다 충돌을 빚었다.

보인 스님은 "선거인을 선출하자는 제8조2항은 전국을 선거광풍으로 몰아넣어 금권선거 등 폐단을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 의원스님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무자 스님이 "민주적인 절차를 구체화하자는 것 뿐"이라고 맞서자, 보인 스님은 "민주적 절차를 논의한다면 직선제를 해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계속된 격론 끝에 종책모임별 토론과 대표단 협의가 있었으나 합의수정안 마저 반대에 부딪혔다. 출석의원 49명 중 찬성 18, 반대 8로 의결정족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한 총무원장선거법은 결국 폐기됐다.

스님들을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케 하기 위해 마련한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도 폐기됐다.

성관 · 주경 스님 등은 '승려노후복지법이 결국 재단을 구성하자는 것인데 총무원이 관리 · 감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스님들의 반대 의견에 선문 · 혜일 스님 등이 "특위에서 상정한 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는데 승려노후복지법 마저 폐기되면 특위 무용론이 나온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후 시간상 휴회가 선언됐으나 20일 21명 의원스님만이 출석해 성원미달로 회의가 자동 유회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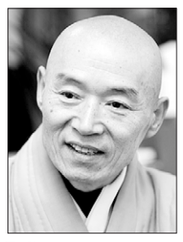
성원미달로 종회가 자동 유회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결산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폐회로 다루지 못한 종법 제 · 개정안들과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교육원장 선출 △중앙선거관위원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등은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한편, 초선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정범 스님은 이번 종회기간 중 "국방부가 원불교에 특혜를 주며 불교계 다툼을 조장한다"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에 이어, 교계 종회의원 최초로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간 ·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현 교육체계·법 정착되기 바라"

조계종 교육원장 퇴임하는 청화 스님



"종단 소임도 놓았으니 이제 시심(詩心)에 젖어 시작(詩作)에 몰두하며 지내렵니다."

조계종 교육수장으로 5년간 일관된 기조로 종단 승가교육을 개선해 온 교육원장 청화 스님(사진)이 임기를 마치고 3월 24일 퇴임한다.

2004년 4월 제5대 교육원장에 취임했던 스님은 5년 임기를 원만히 회향한 첫 교육원장이다.

퇴임에 앞서 18일 교육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스님은 "떠날 때는 말없이 가야하는데 교육원 소임자들이 굳이 간담회를 마련해 사양하지 않고 자리했다"며 "모두 실무자들이 이뤄놓은 것이지 나는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청화 스님은 재임 중 남행자 856명 여행자 544명을 교육 · 수료케 해 1400명이 사미 · 사미니계를 수계해 종단의 출가자로 첫발을 내딛게 하는 등 도제양성에 힘썼다.

이외에도 스님은 각급 승가고시 체계를 확립하고 종단 스님들의 재교육 과정인 연수 및 직무직능교육을 체계화해 정착시켰다.

현종 스님(불학연구소장)은 "청화 스님은 승가교육체계 내실화를 통해 종단 도제양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종단의 사상적 근간 및 정체성 확립에 힘써 온 분"이라고 말했다.

청화 스님은 "소임을 보면서 늘 마음에 두고 챙겼던 것은 현재의 교육제도와 법이 1994년 종단개혁의 성과물이라는 점"이라며 "비록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 해도 많은 논란 속에서 마련된 것 인만큼 그 틀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故 법장 스님 총무원장 시절 '선교육 후득도'를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 결론도 도출했었으나 종회안건 상정도 못하고 폐기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술회했다.

승려시인인 청화 스님은 퇴임에 즈음해 등단 31년 만에 첫 시집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펴냈다.

스님의 퇴임법회는 24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출판기념회와 함께 봉행된다.

조동섭 기자

베를린 국제박람회 최우수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참가한 베를린 국제박람회 ITB(Internationale Tourismus Boerse)에서 3월 14일 한국관(Republic of Korea)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을 주제로 3월 11~15일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서 템플스테이는 최고의 호평을 받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장 진경 스님과 베를린 보문사 주지 병오 스님이 직접 참석해 인경, 붓글씨, 연꽃만들기를 시연해 외국인과 현지인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상언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포교 노하우 한 수 배워요"

조계종 역대 포교원장 간담회

역대 포교원장 스님들이 포교결집과 포교역량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3월 14~15일 역대 포교원장 스님들을 포교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現 포교원장인 혜총 스님과 역대 포교원장 도영 암도 성타 정락 무진장 스님이 자리했다. 스님들은 14일 포교원 관계자들과 포교원 산하 신도단체 대표들을 만나 노고를 치하했다.

혜총 스님은 간담회에서 "포교역량결집에 진력을 다하고자 역대 포교원장 스님들을 모시게 됐다"며 "종단과 포교의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암도 스님은 "현 집행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포교에 주체적으로 임하라"고 조언했다.

성타 스님은 "스님들은 신도들의 후원과 더불어 포교원 정책을 공유하며 각 지역에 적합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영 스님은 "포교는 종단 정치 상황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찰 신도조직화는 포교의 중요부문"이라고 주장했다.

15일 혜총 스님은 계룡대 호국사, 암도 스님은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도영 스님은 자운대 자운사, 성타 스님은 종군사 법련사를 찾아 각각 장병들을 대상으로 법문했다. 무진장 스님과 정락 스님은 서울 국방부 호국원광사와 육군사관학교 호국화랑사에서 각각 법문을 했다.

한편, 포교원 관계자는 "앞으로 연2회 역대 원장들의 모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포교신도단체 위한 무상대여 차량 생겨

포교신도단체들의 포교 활동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무상대여 차량이 마련돼 포교 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3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무상대여용 차량 2대의 안택식을 열고 무사고를 기원했다. 안택식에는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포교연구실장 동성 스님과 종무원 등 포교원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포교원은 포교결집과 역량강화를 위해 9인승과 12인승 포교활동 지원차량 2대를 준비했다. 포교신도단체에서 포교에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날 혜총 스님은 차량내부에 108염주를 걸며 "포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차량운행시 사고가 없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02)2011-1891 이상언 기자

현 종단 상황에 대한 보우승가회의 입장

운산 총무원장의 자진사퇴 시기에 즈음하여 현 상황을 이루어 낸 장본인으로써 보우승가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운산 총무원장은 전 태고종도에게 약속한 3월 말 자진사퇴를 이행하고 종권 연장의 추태를 당장 중지하라.
2. 운산 총무원장과 협력하여 총체적 비리를 자행하는데 동조한 구, 현 종사자들은 종권찬탈의 비행을 중지하고 자숙하여 물러나라.
3. 소위 '한국불교 바른 태고종'이라는 유령단체 명의로 종단의 혼란을 조장하고 종도들의 종론을 호도하는 불순세력은 자신의 실체를 밝히고 참회하라.
4. 보우승가회는 종도라면 누구든 실명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 언제라도 공개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5. 소위 '한국불교 바른 태고종'이란 허위 단체의 불온문서에 명의를 도용당한 각 교구 종무원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종도들의 혼란을 방지하라.

향후 보우승가회의 행보에 의구심이 있는 종도께서는 언제라도 보우승가회에 질의하시면 공개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보우승가회 : 서울시 종로구 창신 3동 7-26. 02) 763-5213

2009. 3. 19.

한국불교태고종 보우승가회 회장 이도산